



금융감독원

# 보 도 자 료



금융결제원



한국거래소

보도	2023.11.3.(금) 조간	배포	2023.11.2.(목)
담당 부서	금융감독원 IT검사국 상시감시팀	책임자	국 장 장성옥 (02-3145-7420)
		담당자	팀 장 이수인 (02-3145-7425)
	금융결제원 IT운영부 IT기획팀	책임자	부 장 유선철 (02-531-1350)
		담당자	팀 장 오연준 (02-531-1310)
	한국거래소 IT관리부 증권시스템팀	책임자	부 장 최재호 (02-3774-9190)
		담당자	팀 장 김미경 (02-3774-9191)

## 금융권 합동 재해복구 전환훈련을 통해 안정적인 전자금융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

### I . 개요

- 금융감독원은 11월 4일과 10일 양일간 은행, 증권사, 금융결제원, 한국거래소가 참여하는 금융권 합동 재해복구 전환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

#### < 금융권 합동 재해복구 전환훈련 개요 >

- 실시일정 : 11.4.(토) [금융투자업권], 11.10.(금)~11.12.(일) [은행업권]
- 훈련목적 :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 재해 발생시 재해복구센터를 통한 전자금융서비스(대외기관 연계서비스 포함)의 신속한 복구 역량 제고
- 참가기관 : 금융감독원, 금융결제원, 한국거래소, 8개 은행, 43개 증권사

### II . 전자금융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위한 그간의 노력

-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카카오 전산센터 화재사고 이후 약 1년간, 예기치 못한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전자금융서비스 중단 및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.
- ① 사고 직후, 전체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비상대책 수립·운영 현황을 자체 점검토록 하였고, '23.3월에는 주요 회사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미흡사항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.

- ② '23.7월, 주요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 최고정보관리책임자(CIO)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, 전자금융업무 연속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.

**< 참고 : CIO 간담회('23.7월) 개요 >**

- ☑ 일시·장소 : '23. 7. 13.(목) 10:00~11:30, 금융감독원 본원 대회의실
- ☑ 참석자 : 금융감독원, 유관기관 담당임원 및 주요 금융회사 CIO 등 30여 명
- ☑ 주요내용 : 비상대책 관련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을 설명하고, 재해 등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예비 인프라 확충 및 대응체계 마련을 당부

- ③ 아울러,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최저 보상한도 상향 및 재해복구센터 구축 의무회사 확대 등 관련 규정 개선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.

### Ⅲ. 금번 훈련의 주요 내용

- (개요) 금번 합동훈련은 최근 전자금융서비스에 금융결제원 등 대외 기관 연계가 확대됨에 따라 자체 시스템에 대한 훈련만으로는 재해 발생시 완전한 서비스 복구를 보장할 수 없다는 진단에 따른 것으로,
  - 은행, 증권사, 금융결제원, 한국거래소에 재해가 발생하여 재해복구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자금이체, 주식주문 등 연계 전자 금융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상호 검증하는 훈련입니다.

**< 금융권 합동 재해복구 전환훈련 일정 >**

일시	주요 내용	비고
11.4.(토)	■ 한국거래소 재해시 주요 회원사 연계 훈련	
	■ 주요 증권사 재해시 한국거래소 연계 훈련 (주식거래 등)	43개사 <sup>주)</sup>
	■ 주요 증권사 재해시 금융결제원 연계 훈련 (자금이체 등)	10개사 <sup>주)</sup>
11.10.(금) ~11.12.(일)	■ 주요 은행 재해시 금융결제원 연계 훈련 (자금이체 등)	8개사 <sup>주)</sup>
	■ 금융결제원 재해시 주요 회원사 연계 훈련	

주) 금년 중 독자적으로 대외기관 연계 재해복구 전환훈련을 기 실시한 금융회사는 제외

- **(금융투자업권)** 미래에셋, 삼성증권 등 주요 증권사(43개사)의 재해 복구시스템 전환시 한국거래소(주식주문 등) 및 금융결제원(자금이체 등) 연계업무 검증 훈련을 실시하고,
    - 주식거래 서비스가 제공되는 한국거래소 여의도센터의 재해 상황을 가정, 재해복구시스템(부산 소재) 전환시 인프라 및 회원사 접속, 주문 정상여부를 확인(11.4.(토) 09:00~18:00)할 예정입니다.
  - **(은행업권)** 국민은행, 신한은행 등 주요 은행(8개사)의 재해복구시스템 전환시 자금이체 등 금융결제원 연계업무의 정상 작동 여부를 검증(11.10.(금) 09:00~18:00)하고,
    - 금융결제원 주전산센터(분당센터) 재해 상황을 가정하여, 재해복구 시스템(역삼센터)의 인터넷·모바일 뱅킹 중계 업무를 대상으로 훈련\*을 실시(11.10.(금) 20:00 ~ 11.12.(일) 01:00)할 예정입니다.
- \* 재해복구시스템을 통해 서비스 정상 제공 (시스템 전환시 1시간 이내의 중단시간 제외)

#### IV.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

---

- 금번 금융권 합동 재해복구 전환훈련을 통해 금융회사가 대외기관 연계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재해대응 역량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- 향후, 금융감독원은 「비상대책 수립·운영 가이드라인」(연내 시행예정, 세부내용 별도 안내)에 주요 대외기관 연계 훈련을 반영하여,
  - 금융회사가 전자금융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기관들과의 연계 훈련을 지속 실시하도록 지도해 나갈 예정입니다.